

한류, 한글 매개한 문화 교류로 시작

전문가 칼럼

김중섭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면 기념행사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다소
분주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특히나 국내 외국
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
서 한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진 느낌이다.

한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의 대답은 “물론”이다. 우선, 한글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 발명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글자가 기원을 뚜렷이 알 수 없는 데 반해 한글은 창제와 반포 시기는 물론 누가, 왜 만들었는지도 분명하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종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 중국어와 몽골어 등 주변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편리함과 경제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우리말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을 뿐더러 3000~5000자 정도를 외워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반면에 표음문자인 한글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 24자를 익히면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발음기관이나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한 획씩 더해 가는 방식으로 글자를 씀으로써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렇듯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서 한글의 우수성은 현대의 언어학자들로부터 인정하는 바이다. 일례로 한글은 1990년대 중반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세계 30여 개 주요 문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들도 20시간 정도면 대개 자모를 익힐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이 크게 늘었다. 한글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한·일이나 한국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한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남미로까지 번지면서 변방의 작은 나라로만 알려져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휴대폰이나 화장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류의 경제 효과와 논쟁을 기사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한류의 지속과 확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인 이유는 대중문화의 속성상 유행 주기

가 짧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홍콩 느와르의 쇠퇴를 예로 들 듯이 한류 역시 질적인 변화를 피하지 않

고는 장기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다.

오늘과 같은 한국어 교육의 성장과 발전은 한류에 빚진 부분이 많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한류로 인해 갖게 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욕구로 연결하는 데 한국어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즐기기 위해서는 대사나 노랫말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사고나 행동 양식 등 문화를 알게 된다. 이때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거나 채워 줄 수 있는 매개가 바로 한국어이다. 한류가 한때의 유행이 아닌 역동적인 국제 화합과 민간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세계적
인 강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라 하겠다. 한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매개로 한 문화 간 교류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들의 문화도 적극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보일 때 한국어와 한류 모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30년간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외국인 동문들을 배출했으며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과의 문화 경제적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인류의 발전, 한국어를 통한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장에서 본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그간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 사람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정진을 다짐해 본다.

참여마당

이규현
언론정보학 2015



내 삶을 정의하는 습관적 욕심

평범했던 한 중학생은, 흔한 영화나 드라마 속 영웅의 ‘비범하기 전의 모습’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 남들 앞에 나서 무언가를 제대로 못하는 건 둘째고,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데도 여러모로 걸림돌이다.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자격지심만 부르는 성격이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볼만이 생기는 그 때, 그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부여될 여지가 생긴다. 중학생은 바뀔 수 있다면 다소의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를 할 정도로 자신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찔른 감았을 것이고, 속이 울렁거려도 어디든 앞에 나서보려 했을 것이다.

중학교 삼년 째에 ‘반장’을 했다. 고등학교 둘 해 해에 학교 ‘신문 편집장’을 했다. 가진 능력보다는 ‘자신감’이 소양 목록에 포함된 여러 대회에 지원도 많이 했다. 뒤돌아보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성취는 달콤했고 더 욕심이 났다. 지금 다른 도전을 결심한 ‘그’는 우리학교 언론정보학과 학회의 장을 맡고 있는 필자다.

언론정보학과 내 유일무이 ‘연극’ 학회인 ‘희망연극문화부’는 연극에 관하여 탐구활동을 하며 연간 세 번의 무대를 올리고, 관객들과 연극의 본연적 의미들을 공유하는 학회이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서보자는 결심이 사실 도전의 본질이긴 했다, 그걸 하다 보니 연극의 재미 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애정도 생겨 학회장을 맡게 됐다.

“

그리고 저지르자, 내가 상상한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학교와 집만이 사회의 전부였던,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에게는 무거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예산 관리, 공연 기획 뿐 아니라 단체의 얼굴로서 홍보 활동까지 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이 있는 자리다. 설립된 지 오래된 학회다보니 까마득한 선배님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없이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니, 처음엔 정말이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계속 버티다가 보니 스스로도 능숙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쉽지는 않았다. 회의감, 박탈감도 느껴보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다.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모두를 통솔하는데 있어서의 부담감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이 많았던 한 학기였다.

폭풍처럼 세 번의 공연이다 끝났다. 임기 중 사실 상 굶직한 일들을 모두 해낸 셈이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지난 도전을 돌아보니 내 그릇은 정말 많이 넓어졌다. 빛도 모르고 하겠다고 한 일기에 더 힘들었다. '욕심이 앞서서' 잘못 한 건지 고민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욕심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어느샌가 욕심을 부리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습관은 내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 닿는 데까지 욕심 부리자. 그리고 저지르자. 그러면 내가 상상한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illegible]